

##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12월 소식

올 가을에는 비교적 따뜻하여 11월 말까지 따뜻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12월로 접어들자마자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우기라서 눈이 많이 쌓이는데, 이제 도시 뒤쪽 천산 산맥들이 눈으로 하얗게 덮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유난히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4천미터 정도의 산자락에만 눈이 남아 있었는데, 겨울 눈이 내리니까 순식간에 산맥 전체가 눈으로 덮였습니다. 두주 전에 동료 사역자들과 김장을 함께 하고 나누어 저장했습니다. 주로 아파트에 살지만, 개인주택에 사는 분의 집 마당을 빌려 땅을 파고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겨울에도 배추가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김장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이곳 사역자들은 한국의 옛날 방식으로 100kg~200kg 씩 김장을 해서 저장해 놓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곳 중앙아시아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로 인해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간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 신약 주석 번역 작업** 13권 시리즈의 최초 키르기즈어 주석 번역 사역이 시작된지 벌써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재정도 그렇지만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서 길어지는 만큼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보람있고 의미있는 사역이라 여겨집니다. 복음서 4권과 공동서신, 데살전후-갈라디아서가 지난 봄에 출간되어 모두 6권이 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사도행전의 감수 작업이 완료되어 마지막 검토 및 편집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옥중서신의 감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사역하는 로빈 교수에게 앞으로 13권의 시리즈가 완역, 출간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국사역자 쟈이쉬가 새로이 감수 작업에 합류하여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역에 함께 하는 외국인 사역자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M전략 연구소** 한국 사역자들 중심으로 M전략 연구소가 출범한지 2년이 넘어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사회와 전문위원으로 15명 정도가 함께 연합하여 협력하고 있는 연구소 사역은 이 사역만을 위해 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사역들을 논의하여 함께 하는 협력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두차례의 이슬람 연구 포럼을 통해 이곳에 있는 한인사역자들과의 연구 자료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5권의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도서(교리, 설교, 훈련)들을 출간하여 저렴하게 보급하는 문서사역이 또 한가지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난 주에는 전문위원들이 함께 모여, 지난 한해 동안의 서로의 사역도 나누고, 함께 할 사역들도 논의 하면서 교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하는 사역도 다르고, 교단과 단체도 다르지만, 별도의 시간을 내어 중앙아시아에서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포럼, 문서 사역을 위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있는 모임이라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크지 않아도 서로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또 다른 사역자들과 사역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새롭게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간과 역할이 다른 가운데 함께 모이고, 공통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지 교회 (새언약)** 지난 소식지에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이 이곳 키르기즈에 처음 왔을 때 중학생이었던 친구가 신학을 하고 지난 9월에 목사 안수를 받아 든든히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6살과 3살 쌍둥이를 포함하여 3명의 딸을 가진 벅푸르 목사네 가정이 부모를 잃은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4명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마음 뿐 아니라 고아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많아 입양하여 사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더 새롭게 소망해 봅니다. 그동안 살던 사택이 너무 오래되고 천정이

다 내려 앉아서 이를 위해 기도하던 일이 응답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캐나다에 계신분이 이곳을 방문하셨다가 이 상황을 보시고, 그곳 교회로부터 헌금을 하여 보내 주셨고, 그 헌금으로 23평정도 되는 사택을 지었는데, 6개월 만에 완공되어 지난 주에 입주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부에는 가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손재주가 조금 있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주방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여 판재를 가공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몇몇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면 다음 주 중에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안정된 공간에서 이제 청년들 모임과 구역모임등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출입하는 사택을 늘 개방하여 섬기는 현지 리더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룹홈 및 노숙자 사역** 그룹홈 카라발타는 이곳 비쉬켄에서 자동차로 약 한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기관으로부터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보육원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주 다니지 못했는데, 좀더 자주 다니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아내와 함께 가서 전체 아이들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로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도 최근에 몇 명 생겼고, 알콜 중독자의 자녀 중에는 심리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이들 전체가 20여명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전체 관리와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방문자로서 잠시 다녀가도 아이들과의 친근함이 건강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규모가 큰 시설과 달리 관계와 돌봄에 주려 있지 않고 내부에서의 건강한 돌봄이 있음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귀한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은 아니지만, 그룹홈으로서 가정을 대신하여 사랑과 돌봄이 있는 이곳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겨울부터 시작하는 사역인데, 이곳 비쉬켄에 네 개의 구청중 하나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곳은 겨울이 길고 기온이 아주 낮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이 몇군데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공간이 있어도 머물러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온 사역자가 노숙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단계별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이곳은 전문적인 사역은 아직 아닙니다.

도움이 시급한 이들에게 간단한 공간에 난로와 샤워시설을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고, 현지 교회 한 곳과 협력하여 먹을 것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돕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함께하기에 복음을 들을 기회도 갖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6개월 프로그램인데, 올해 1년차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적은 재정으로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구청과 협의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도 청렴해 보이고, 이 일에 의미를 두고 있어서 시작하는 마음에 만족감이 큼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족 스케치** 지은이와 지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휴학하고 저희에게 와서 아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주말한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기피(\*^^\*)하는 장난꾸러기 아이들 반인데, 재미있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아는 드림아카데미 한국어 교실의 한국어 교사로 하루에 네 시간씩, 주 3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모두 자유로워서 그런지 가르치는 일을 즐겨워 합니다. 물론 현지 아이들도 반응이 좋고, 앞으로 한국어교사 자격에도 관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에 담요를 떠서 거의 완성했는데, 조만간 네덜란드에 있는 난민들을 위한 후원단체로 보낸다고 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쉽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곳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역과 저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곳의 소식을 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헤브론, 김엘레나 드림